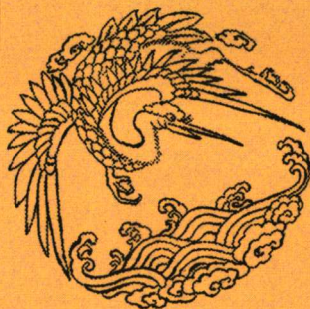


# 한어문소설번역탐구

漢 文 小 說 翻 譯 研 究

류원무 지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사

漢 文 小 說 翻 譯 所 叢

# 한어문소설번역탐구

류원무 저



홍익인간

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汉文小说翻译研究 / 柳元武著. 牡丹江: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6. 8

ISBN 7-5389-1333-5

I. 汉... II. 柳... III. 小说—朝鲜语—翻译理论—研究 IV. ①I207.4 ②H555.9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6)第085793号

书 名/ 汉文小说翻译研究

著 者/ 柳元武

责任编辑/ 李贤吉

责任校对/ 金英花

封面设计/ 尹今玉

出版发行/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印 刷/ 延边新华印刷有限公司

开 本/ 850mm×1168mm 1/32

印 张/ 8.25

字 数/ 210千字

版 次/ 2006年9月第1版

印 次/ 2006年9月第1次印刷

印 数/ 1—1 000册

书 号/ ISBN 7-5389-1333-5/I·446(民文)

定 价/ 16.00元

---

## 머리말

중국조선족은 중화인민공화국이란 대가정속에서 살며 매일 매시각 정치, 경제, 군사, 과학기술, 문학예술, 체육, 위생 모든 영역에서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주체민족인 한족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그 자양분을 섭취하며 자기를 키워왔고 계속 키우고있다. 백여년 역사를 가진 우리 조선족이 중화민족 대가정속에서 자립하고 자강(自強)하며 어엿한 일원이 된 근본 요인의 하나가 바로 보도매체, 출판물을 통한 번역에 의해 부단히 자신을 문화과학기술지식으로 무장한데 있지 않을가싶다.

광복이 나면서 1945년 9월 18일에 태어난 《한민일보》, 그것이 그해 11월 5일에 《연변인민》으로 되고 《동북조선인민보》를 거쳐 오늘에 이른 《연변일보》, 1947년 3월 24일에 설립된 연변교육출판사, 뒤따라 설립된 민족출판사 조선문편집실, 연변인민출판사, 연변대학출판사,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료녕민족출판사 또 뒤를 이어 발간된 여러 신문, 잡지와 방송 등이 우리 민족의 성장에 기여한 그 업적은 아무리 높이 평가하여도 과분하지 않을것이다. 오늘을 살고있는 사회주의건설자들, 제2대, 제3대의 과학자, 학자, 교원, 작가, 예술가, 우리 민족의 정화들은 바로 이 보도매체들이 찍어낸 신문, 잡지들을 보고 출판사들이 찍어낸 교과서를 배우고 또 출판사들이 찍어낸 일반도서를 읽으며 자라났다. 비록 오늘에 와서는 우리 민족자신이 써내

## 2 한어문소설번역탐구

는 글들이 많아지고있지만 20세기 80년대이전까지만 해도 만단위로 헤아려지고있는 신문, 잡지, 교과서, 일반도서의 글들은 거의가 한어문을 조선문으로 번역한 글들이었다.

한편 서사번역 자체는 창창히 발전되어왔지만 그에 반해 번역품을 지속적으로 높은 단계에로 이끌어줄 번역리론 연구사업은 뒤떨어져있는 형편이었다. 《조선어문》잡지에 번역에 대한 문장이 종종 실리고 중앙민족대학, 연변대학 중문학부들에서 번역리론이 강의되고있기도 하지만 저서로는 1978년에 최길원선생이 편찬한 《현대한어 허사》가 나오고 1980년에 최기천선생이 집필한 《한어문번역에 대하여》가 나왔을뿐이다.

이에 비추어 필자는 연변인민출판사에서 26년간 번역, 편집으로 있으면서 3백여만자의 번역실천, 천여만자의 심열가운데서 뽑아둔 레문들을 추려서 《한어문소설번역탐구》를 쓰기에 이르렀다.

어떻게 하면 한어문을 우리 말로 훌륭히 번역해낼수 있을까? 신문론설문체나 과학기술문체와는 달리 문학예술 문체로서의 소설번역의 특성은 무엇인가? 언어예술로서의 문학작품을 어떻게 번역해야 번역작품이 원문언어예술의 매력을 잃지 않도록 그 면모를 재현시킬수 있을까? 다시말하면 소설번역이라는 이 창조성적인 로동중에서 역자는 어떻게 원문을 파악하여 우리 말로 원작의 내용과 의미지와 정감과 개성과 형상과 스펙을 원만히 재현시킬것인가?

필자는 이에 대하여 비록 지금의 번역작품의 레문을 들지 못하는 형편이면서도 자신의 천박한 견해나마 피력해 보고저 한다. 그리고 그 탐구가 미흡하고 오류가 있더라도

앞으로 한어문 대 조선어문 번역리론연구의 참고자료라 도  
되게 하고픈 일념에서 용기를 내여 이 책을 집필하기에 이  
르렀다. 집필과정에 최기천선생의 저서 《한어문번역에 대  
하여》에서 일부 레문을 옮겨썼음을 밝혀둔다.

그리고 이 저서의 레문들은 주로 《모택동선집》, 류청  
의 《창업사》(리철준 역), 호연의 《맑은 하늘》(리철준  
역), 위위의 《동방》(리철준 역), 파금의 《봄》(박상봉 역),  
장양의 《두번째 악수》(리철준, 김영화 역), 왕몽의 중편  
소설 《나비》(리철준 역) 등 역본들에서 인용하였음을 밝  
혀둔다.

끝으로 학자, 번역가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가르침과  
지적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 책을 펴내준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편집선생님들에  
게 감사를 올린다.

저 자

2006년 5월 14일

## 차 례

머리말.....	(1)
서론.....	(1)
제1절 번역.....	(1)
제2절 번역표준.....	(5)
제3절 생동성의 기본요소.....	(12)
제1장 번역에서의 어휘처리.....	(22)
제1절 한어단어의 특성.....	(23)
제2절 조선어단어의 특성.....	(42)
제3절 어휘선택의 깊이.....	(54)
제2장 품사 우수성의 발양 .....	(64)
제1절 명사 .....	(65)
제2절 수사 .....	(70)
제3절 대명사 .....	(73)
제4절 동사 .....	(76)

## 2 한어문소설번역탐구

---

제5절	형용사	(79)
제6절	부사	(83)
제7절	감동사	(88)
제3장	표달방식에서의 언어습관	(94)
제1절	풍속세태와 언어습관	(95)
제2절	비유와 언어습관	(101)
제3절	성구, 속담과 언어습관	(108)
제4장	문장론적특성과 번역	(116)
제1절	사유방식과 어순	(117)
제2절	어순과 문장론적관계	(126)
제3절	《삭제》와 《가침》	(135)
제5장	토의 묘리	(147)
제1절	격토 사용	(149)
제2절	도움토 사용	(155)
제3절	이음토 사용	(158)
제4절	맺음토 사용	(165)
제6장	정서의 흐름	(173)
제1절	정서와 틀둥	(173)
제2절	문장흐름의 완만성	(178)
제3절	문장흐름의 긴박성	(183)

---

제4절 정경묘사.....	(189)
제5절 초상묘사.....	(193)
제6절 지문에서의 말체 .....	(197)
제7장 대화번역 .....	(203)
제1절 대화의 특성 .....	(204)
제2절 대화의 감정정서 .....	(211)
제3절 성격언어.....	(224)
제4절 대화에 대한 설명.....	(237)
제8장 작가의 스펙과 번역가.....	(241)

# 서론

## 제1절 번역

다 알다싶이 번역이란 한가지 언어로 된 말과 글의 내용을 다른 한가지 언어로 된 말과 글로 재현 또는 전환시키는 로동이다. 번역은 원문을 그대로 역문으로 번져놓는 기계적인 로동이 아니며 원문의 내용과 형식을 떠나 임의로 《창작》을 하는 그런 로동도 아니다. 번역은 원문의 내용과 형식의 제약을 받으면서도 역문언어의 특수성을 살려야 하는 창조성적인 로동이다. 제약과 《창조》, 이 양자는 서로 모순되면서도 통일되는것이다. 번역이란 어디까지나 원문의 내용과 형식, 스펙을 충실하게 재현시키면서도 역문에 정확성, 명료성 생동성을 부여하는 번역자의 피타는 로력이 스민 창조성적인 로동이다.

번역이 창조성적인 로동으로 되여야 하는 까닭은 원문과 역문 두가지 같지 않은 언어의 서로 다른 특수성에 있다. 세계 수많은 민족의 각종 언어는 기본적인 공통성을 가지고있으면서도 또 서로 자체의 단어사용의 특수성, 단어결합의 특수성, 문장구성의 특수성, 표달방식의 특수성, 언어습관의 특수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원문의 특수성을 역문의 특수성에 용해시키려면 번역자의 부단한 사유의 비약으로 이룩되는 창조적재능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것이다. 과학기술문체나 신문론설문체로 된 문장의 번역도 례외가 아니지만 문학예술문체인 소설번역에서는

## 2 한어문소설번역탐구

이 《창조》가 보다 들출하다.

○ 人们重新纷纷议论起来,有人说,梁生宝人年轻,做事没底。另  
外人说,县里夸奖他几句,他就脚跟离地了,也有人估计,他做不到  
活,很可能犯法,因为据区委书记在村里讲话,“计划就是法律”……  
等等。

① 사람들은 또다시 분분히 의논하기 시작하였다. 어떤 사  
람은 생보는 나이 어리므로 일에 실속이 없다는 것이었고 어떤  
사람은 현에서 잘한다고 몇마디 취주니 우쭐댄다는 것이었고 또  
어떤 사람은 전에 구위서기가 마을에서 연설할 때 《계획은 곧  
법률이다》고 한 까닭에 만약 생보가 계획대로 일을 못하는 나들  
에는 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창업사》 제1부 역본 제1판

② 사람들은 또다시 중구난방으로 지껄이기 시작하였다.  
생보는 나이 어리므로 일에 실속이 없다는 등 현에서 잘한다고  
몇마디 취주니 우쭐댄다는 등 전에 구위서기가 마을에서 연설할  
때 《계획은 곧 법률이다》고 한 까닭에 만약 생보가 계획대로 일  
을 못하는 나들에는 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등 별의별 소리를 다하  
였다.

《창업사》 제1부 역본 제2판

참으로 흥미있는 실례라고 할수 있다. 한 역자의 손에서 나  
은 역본 제1판과 수정된 역본 제2판의 번역이 이렇게도 다른 것  
이다. ①도 원문의 내용전달에는 틀림이 없고 문장도 순탄하지  
않다고 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된 역문이 독자의 머  
리속에 명료하고 생동하게 안겨드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수정된 역문이 기계적인 번역에서 벗어나 창조적으로 우리 말

말체의 특성을 살리면서 반복을 나타내는 토 《둥》으로 세번에 걸쳐 나오는 《有人说》, 《另外人说》, 《也有人估计》를 대체한 거기에 있다. 하기에 원 역문은 딱딱하고 지저분하지만 수정된 역문은 간결하고 미끈하고 농민들이 중구난방 지껄이는 분위기를 생동하게 살려내게 되었다. 아래에 량삼로인이 아들 생보를 욕하는 실례를 더 들어보기로 하자.

○ “你呀！你太能了！能上天！你给互助组买稻种嘛，你给大伙夸稻种这好那好做啥？这阵弄得自家也不够了！好！好！精明人！”

《참 잘한다! 너무 잘해서 승천하겠다! 호조조 벼씨를 사왔으면 사왔지 남들에게 좋다고 와자자 고아델건 부어나? 인젠 제 집 벼씨도 모자라게 됐다지! 잘한다! 잘해! 참 똑똑하구나!》

량삼로인이 아들앞에서 천둥같이 화를 내는 모습을 그대로 보는것만 같다.

대화로서의 간결성, 성났을 때의 어감과 비꼬는 투가 제법이다. 원문의 문자리면에 숨어있는 뜻을 포착하여 《你呀》를 《참 잘한다》로 긍정의 부정으로 어감을 높여준것이라든가 《精明人》을 《똑똑한 사람》이라 하지 않고 《참 똑똑하구나》로 비꼰것이라든가 조선말 토의 특성을 살려 《벼씨를 사왔으면 사왔지》 하고 반복으로 말이 강조되게 한것이라든가 모두가 창조적인 재현인 것이다. 그리고 《와자자 고아대다》와 같이 우리 말 부사의 우수성을 발휘함으로써 대화의 생동성을 높이고있다. 이것이 곧바로 번역자의 재질이며 번역자의 창조성적인 로동이며 로신이 말한 《재창작》인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모순선생은 문학작품의 번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적이 있다.

《문학작품은 언어로 창조된 예술이다. 문학작품에 대한 우

#### 4 한어문소설번역탐구

리의 요구는 사물에 대한 개념과 슈제트의 서술에만 그치는것이 아니라 보다 주요하게는 독자들을 예술적인 경지에로 이끌어야 하는바 예술적형상으로 작중인물의 사상과 행동에 대한 독자들의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문학작품의 번역은 다른 하나의 언어로 원작의 예술적경지를 전달해내야 하는바 독자들로 하여금 역문을 읽으면서도 원작을 읽을 때와 똑같은 감흥을 받게 하여야 하며 똑같은 미적감수를 받게 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문학작품의 특수성으로 하여 비단 우리 나라에 서뿐만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작가협회산하에 번역위원회를 두고있으며 문학작품을 번역하는 번역자들을 작가협회성원으로 받아들이고있는것이다. 물론 번역이 창조적인 노동이라 하여 결코 역자가 제멋대로 《창작》할수 있다는것은 아니다. 창조성적인 노동과 《창작》은 절대로 동일시될수 없는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로신은 《나는 아무튼 번역에서는 구상할 필요가 없으니 창작에서보다 쉽겠다고 생각하여왔다. 그런데 정작 번역을 하자고보면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레를 들면 어느 한 명사나 동사가 상기되지 않을 경우에 창작에서는 그것을 회피할수 있지만 번역에서는 그렇게 할수 없다.》고 하였으며 《번역은 재창작》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번역일군은 번역을 정확하게 하고 미끈하게 하며 생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개 방면의 소질을 갖춘 전문가여야 한다.

첫째, 번역이란 원문을 역문으로 정확히 재현해야 하는것이므로 우선 원문의 내용과 의미지, 표달방식의 특수성을 투철히 리해하고 파악할수 있어야 한다. 이는 번역에서의 전제이다. 잘못된 번역과 오역은 번역에서 금물이다.

둘째, 번역의 목적은 역문독자들에게 원문을 읽을 때와 꼭

같은 감흥을 갖게 해야 하므로 역자는 역문언어의 능수여야 한다. 풍부한 어휘, 능란한 표달방식을 갖추지 못하고서는 언어의 예술인 문학작품을 생동하고 형상적으로 재현해낼수 없는 것이다.

셋째, 번역일군은 지식이 다방면이어야 하거니와 특히 전업 지식이 있어야 한다. 정론문체번역에 종사하는 역자는 정치경제학, 철학지식이 깊어야 하고 과학기술문체번역에 종사하는 역자는 현대과학기술지식이 풍부해야 하고 문학예술문체번역에 종사하는 역자는 형상사유에 능해야 한다. 흔히 철학자들 손에서 고전저작들이 번역되어나오고 작가들 손에서 문학예술작품이 멋지게 번역되어나오는 까닭은 바로 역자들의 전업지식수준이 밑거름이 되어있기때문이다.

역자가 이런 제방면의 소질을 고루 갖추고있지 못하고서는 원문의 특수성을 역문의 특수성에 융해시키는 창조성적인 로동을 진행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재창작》을 해낼수 없게 되는 것이다.

## 제2절 번역표준

그러면 어떤 번역이 잘된 번역인가? 잘된 번역의 표준은 무엇인가?

번역표준을 두고 지난날 우리 나라 번역계에서는 물론 다른 나라들에서도 많은 토론들이 전개되어왔다.

영국의 번역가 디테르는 《능숙한 번역가는 원문의 장점을 다른 한 어문에 완전하게 옮겨놓음으로써 원작을 보는 사람들이 깨치며 감수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역문을 보는 나라의 사람들더러 똑똑히 깨치며 깊이 감수하게 한다.》고 하였고 쏘련의 번역

## 6 한어문소설번역탐구

가 메트로브는 《번역의 표준은 번역의 등가(等价)》라고 하였다. 그는 《등가란 이 술어는 번역에 있어서 원문의 작용과의 합치성(표현에서의 적절성 즉 등가) 및 역자가 선택하여 쓰는 언어의 적절성(언어와 문체의 등가)이란 이 두가지 개념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청조말년의 번역가 엄복(嚴復)이 제기한 《신(信)》, 《달(達)》, 《아(雅)》에 대해 많이 논의되었다. 엄복이 제기한 《신》이란 원문의 내용을 정확히 표현한다는 것이고 《달》이란 역문이 순통해야 한다는 것이고 《아》란 글이 아름다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조선족번역계에서도 엄복이 제기한 이 논점에 대한 토론이 적지 않게 있었다. 원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표달해야 한다는 《신》에 대해서나 역문이 순통해야 한다는 《달》에 대해서는 별로 의견이 없었다. 그러나 《아》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하기는 《아》에 대한 엄복의 해석에는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는것만은 사실이다. 이를테면 역문을 생명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령 원문이 아름답지 못하더라도 역문에서는 아름다와야 한다고 하는것이라든가 《옛날의 문구를 쓰게 되면 〈아〉의 표준을 달성하기 쉽지만 근세의 문구를 쓰면 〈아〉의 표준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한것 등등이다. 필자는 엄복의 이런 해석들에는 시대적제한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면서 역문은 원문을 정확하게 표달하고 문장이 명료해야 할뿐더러 표현이 생동해야 한다고 인정한다. 다시말하면 내용전달의 정확성, 문장구성의 명료성, 표현형태의 생동성, 이 3자가 유기적인 통일체속에서 내용과 형식의 고도의 완미성이 이룩돼야 한다고 인정한다.

## 1. 내용전달의 정확성

번역의 목적은 부동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며 사상감정을 교류하며 각종 정보를 교환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내용전달의 정확성은 번역의 기본요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출판물에는 상품경제의 충격파로 인한 부산물이라 할가 어처구니없는 번역들이 도처에서 판치고있다.

○ “……不过，恶鬼不恶，原来是——种善神！”

《…그러나 악마는 악하지 않고 원래는 일종 선한 신이었던 겁니다!》

○ “不怕校长双脚跳，只怕校长脸上笑。”

《교장선생님이 두발로 뛰는것이 두려운것이 아니라 그가 짓는 미소가 더 두렵다.》

어처구니없다고 할가, 알고도 모를 소리들이다. 지금 책이나 잡지를 번지기만 하면 이러루한 잡동사니 번역들이 눈에 뜨이게 되니 너무도 한심해서 오역이니 축자역이니 자유역이니 하고 역문을 분석할 기분도 나지 않는다. 지금 우리 신문출판계에는 한어를 모르는 《번역가》들이 적지 않다. 한자나 아는 정도로 번역을 《도거리》한다. 어찌하여 우리의 출판물에 이러루한 번역이 거침없이 나타나는가? 물론 번역을 처음 배우는이들한테서는 이런 폐단들이 자연스레 나타날수 있겠다고도 할수 있지만 아무튼 편집부에서는 심열이 되고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어찌보면 심열자 역시 한어를 잘 모르는것 같다. 그러다나니 서로의 손에서 죽어나는것이 옥편이다. 옥편의 해석에 따라 한글자씩 뜻풀

## 8 한어문소설번역탐구

이해서 번역하다보니 옥편식번역, 축자역이 될수밖에 없다. 한어 단어결합의 일반성과 특수성, 한어문장구성의 법칙과 그 특수형태는 말할것 없고 심지어 단어의 뜻조차 모르면서, 그리고 소설을 번역한다는 사람이 생활어도 제대로 쓸줄 모르면서 번역을 한다니 번역에 대한 인식이 너무도 그릇된것 같다. 번역이란 손쉽게 해먹을수 있는 돈벌이수단이 아니다. 번역도 학문이며 과학이다. 과학앞에서는 그 누구나 성실해야 한다. 그 성실성이란 바로 고심한 배움이다. 원문도 모르고서야 어떻게 번역을 할수 있으며 번역을 한단들 어떻게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수 있으며 더우기는 원문의 속박에서 벗어날수 있겠는가. 원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는것, 이것은 번역자의 제1차적인 사유이며 제1차적인 과업이다.

### 2.역문구성의 명료성

역문의 명료성은 원문의 내용을 역문독자들에게 흡수시키는 기본이다. 부동한 언어에는 모두가 그 민족의 전통적인 사유방식과 표달방식이 반영되어있다. 언어에 표현된 사유방식과 표달방식이 바로 언어법칙이다. 역자가 원문을 파악하고 원문언어법칙의 속박에서 능동적으로 뛰어나와 역문을 미끈하게 짜자면 역문의 언어법칙을 능숙하게 지켜내야 한다. 원문의 내용과 의미, 정감, 행동에 관계되는 특수한 표현형태를 받아들임에 있어서도 이 법칙을 지켜야 한다. 번역에서의 이러한 비약이 역자의 2차적인 사유인바 원문의 노예로부터 역문의 주인으로 된다는것이다. 조선사람에게 보이려는 글인데 그것이 조선어의 언어규범, 언어습관에 맞지 않는다면 독자들의 사유를 흐리우게 되며 나아가서는 혼란을 조성하게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역문은 마땅히